

환병환자의 임상양상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신경정신과교실, 한국한의학연구소*

지상은 · 김종우 · 황의완 · 조황성*

I. 緒 論

환병(火病)이란 민간에서 火의 역동성을 상징하여 사용하여 온 병명으로 울화병이라고도 한다^{16,26)}.

한의학적으로 환병이 역대 문헌에서 독립된 질병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으며¹⁶⁾, 火와 관련된 여러 가지證과 症候에서 일치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16,18,19)}.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환병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환병을 神經症(neurosis), 心身症(psychosomatic disease) 등의 질환을 포함하여 火의 양상을 지니는 질병의 총칭으로 보는 시각이다. 문충모 등²⁰⁾은 민간에서 말하는 환병은 七情의 過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체내의 熱感으로 鬱火, 心火, 肝火, 胃火, 陰虛火動, 心腎不交가 대표적이라고 하였고, 조홍건¹⁰⁾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체내의 火로 말미암는 病狀을 울화병 또는 환병이라고 하며 이를 心身症과 같은 범주 내에서 해석하고 있다. 구병수 등¹⁶⁾은 환병은 氣나 火의 부조화에 의하여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자율신경실조와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환병에 상응하는 한의학적인 용어로 梅核氣, 百合病, 奔豚證, 煩躁, 上氣候, 驚悸, 怔忡, 藏躁, 鬱證, 上實下虛, 花顛, 血崩을 제시하였다. 李鐘馨⁸⁾은 <火(熱)病에 總括>에서 火病은 火가 원인이 되거나 火의 양상을 띤 모든 질병 양상을 포괄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둘째는 정신과 영역에 한정된 환병의 개념으로 곧 울화병을 의미한다.

서양의학적으로는 환병을 정신과 영역에 국한시켜 보고 있으며, 우리 나라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보고 있다. 이시형³³⁾이 1977년 임상적 연구를 시행한데 이어, 민성길 등^{21~29)}의 연구가 이어졌고, 해외에서는 Lin³⁶⁾이 1983년 재미교포 환자 3례를 보고하였으며, Pang³⁷⁾은 1990년 20여명의 나이든 한국인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환병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DSM-IV에서는 환병을 한국 문화 특유의 문화 관련 증후군 (Culture bound syndrome) 으로 분류하였다¹⁸⁾.

본 연구는 환병을 정신과 영역에 국한된 울화병의 개념에 한정하여 시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환병 환자들은 가정생활, 경제상황,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성격소인, 방어기제·대응전략, 증상 심화·경감 요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 등의 요인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정상인 대조군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는 미흡하였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환병 환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고안하여 환병 환자의 임상양상을 정상인군과 대조하고, 환병 환자의 가정생활, 경제상황,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성격소인, 방어기제·대응전략, 증상 심화·경감 요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 등 환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1997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 또는 외래 내원한 환병 환자 중 설문지 조사에 응한 48명을 환병 환자군으로 설정하였다.

환병 환자군이 전원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조군은 자신이 환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30대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하여 선택된 64명을 정상인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2. 진단기준

환자 자신이 환병으로 자각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며, 한의사의 진단상 발병기간, 원인, 증상 등의 병력을 참고로 하여 환병으로 인정되는 환자를 환병 환자군으로 하였다.

3. 설문지

설문지는 인적사항, 성격소인, 가정생활, 방어기제·대응전략, 심리적 증상,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 신체적 증상, 증상 심화·경감 요인 등 9개 항목 74문항이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환병 환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16,18,19,21-29,31,33-35}.

4. 분석방법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사이의 각 설문제에 대한 차이점을 χ^2 - test 로 검증하였다.

환병 환자군에 한하여 설문지 각 설문 중 관련된 문항을 묶어서 10개 항목으로 지수화하여 각 항목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각 항목과 신체적 증상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지수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지수화한 설문

항 목	해당설문
가정생활	설문 7~11
경제	설문 12
방어기제·대응전략	설문 13~20
신체증상	설문 46~69
심리증상	설문 21~28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	설문 31~45
성격소인 陽성향	설문 2, 4
성격소인 陰성향	설문 1, 3
성격소인 의존성	설문 5
성격소인 내태	설문 6

통계처리는 SPSS 7.0 for WIN 으로 처리하였다.

III. 研究結果

1. 인적사항

인적사항에서는 학력과 경제적 수준에서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성별

	여	계
환병	48	48
대조군	64	64

표 3. 나이

	나이					계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환병	9	13	12	12	1	47
대조군	17	18	16	11	2	64

표 4. 학력

	학력					계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환병	5	17	11	12	3	48
대조군		14	7	31	11	63

환병 환자군과 대조군의 학력에는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7.437, df=4, p=0.002$)

표 5. 결혼

	결혼				계
	기혼	사별	이혼	별거	
환병	40	4	2	2	48
대조군	57	7			64

표 6. 직업

	직업								계
	가사 및 노동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기타	
환병	38	2		1	1		2	4	48
대조군	45	1	5		2	1	6	3	63

표 7.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				계
	매우 가난하다	가난한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있는 편이다	
환병	6	8	27	6	47
대조군		7	48	8	63

환병 환자군과 대조군의 경제적 수준에는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0.119, df=3, p=0.018$)

표 8. 환병 환자군의 발병기간

	환병 환자군의 발병 기간						계
	6개월 이전	1년 이하	2-5년	6-9년	10-19년	20년 이상	
환병	2	2	10	6	12	6	38

2. 성격소인

성격소인에서는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설문 1)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9	13	15	10	48
대조군	1	10	22	24	7	64

표 10. 나는 원래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설문 2)

	나는 원래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10	8	21	4	48
대조군	5	26	12	17	4	64

표 11. 나는 원래 남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만다 (설문 3)

	나는 원래 남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만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8	4	30	5	48
대조군	4	6	10	35	9	64

표 12. 나는 원래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설문 4)

	나는 원래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13	7	22	3	48
대조군	3	8	22	25	6	64

표 13. 나는 원래 어떤 일이건 혼자서는 잘 못한다 (설문 5)

	나는 원래 어떤 일이건 혼자서는 잘 못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8	21	5	13	1	48
대조군	12	18	16	11	6	63

표 14. 나는 내 병이 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 (설문 6)

	나는 내 병이 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7	11	5	24	1	48
대조군						

3.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는 “나는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시댁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의 설문에서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표 15. 나는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설문 7)

	나는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9	14	8	6	1	48
대조군	2	13	23	21	5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0.392$, $df=4$, $p=0.000$)

표 16.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설문 8)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0	7	9	19	3	48
대조군	2	5	20	24	1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684$, $df=4$, $p=0.005$)

표 17.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설문 9)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3	11	9	13	2	48
대조군	1	8	20	26	9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1.881$, $df=4$, $p=0.000$)

표 18. 시댁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설문 10)

	시댁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8	11	14	12	2	47
대조군	2	7	16	31	8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351$, $df=4$, $p=0.006$)

표 19.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설문 11)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6	6	26	8	46
대조군	1		12	24	22	59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222$, $df=4$, $p=0.007$)

표 20. 살아오는 동안 항상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해왔다 (설문 12)

	살아오는 동안 항상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해왔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4	6	25	10	48
대조군	2	14	15	22	11	64

4. 방어기제, 대응전략

방어기제, 대응전략에서는 “화가 날 때는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 “화가 날 때는 혼자서 운다” 의 설문에서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폭식을 하게 된다
(설문 13)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폭식을 하게 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1	13	3	9	2	48
대조군	23	23	12	5	1	64

표 22.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앞 뒤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산다 (설문 14)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앞 뒤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산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환병	19	26	2	1	48
대조군	27	22	2	2	63

표 23.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다 (설문 15)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7	11	2	6	2	48
대조군	40	12	8	2	2	64

표 24.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잠을 잔다 (설문 16)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잠을 잔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6	15	7	7	3	48
대조군	23	18	14	6	1	62

표 25. 화가 날 때는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 (설문 17)

	화가 날 때는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1	6	29	11	48
대조군	5	14	17	16	1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1.139$, $df=4$, $p=0.000$)

표 26. 화가 날 때는 혼자서 운다 (설문 18)

	화가 날 때는 혼자서 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7	4	28	8	48
대조군	18	20	14	8	3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9.096$, $df=4$, $p=0.000$)

표 27.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른다 (설문 19)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른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1	21	7	6	3	48
대조군	21	19	12	8	4	64

표 28. 화가 날 때는 뛰쳐 나가거나 무엇이는 집어 던진다 (설문 20)

	화가 날 때는 뛰쳐 나가거나 무엇이는 집어 던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8	18	9	3		48
대조군	38	18	5	2	1	64

5. 심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에서는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짜증이 난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우울하고 허무하다”, “외롭다”, “슬프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 “깜짝 깜짝 놀란다”, “죽고 싶다”, “아무 이유 없는 똑같은 생각이 자꾸 나서 견디기 힘들다”의 설문에서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표 29.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설문 21)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7	20	16	2	48
대조군	3	21	28	8	4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9.576$, $df=4$, $p=0.048$)

표 30. 짜증이 난다 (설문 22)

	짜증이 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5	4	33	5	48
대조군	2	8	39	11	4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9.138$, $df=4$, $p=0.000$)

표 31. 불안하고 초조하다 (설문 23)

	불안하고 초조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4	3	25	15	48
대조군	8	22	16	12	5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4.980$, $df=4$, $p=0.000$)

표 32. 우울하고 허무하다 (설문 24)

	우울하고 허무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2	4	26	15	48
대조군	6	19	23	14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2.833$, $df=4$, $p=0.000$)

표 33. 외롭다 (설문 25)

	외롭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8	6	22	10	47
대조군	15	22	17	9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5.079$, $df=4$, $p=0.000$)

표 34. 슬프다 (설문 26)

	슬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7	8	24	8	47
대조군	14	26	12	8	2	62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5.956$, $df=4$, $p=0.000$)

표 35. 두려운 생각이 든다 (설문 27)

	두려운 생각이 든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9	6	23	8	48
대조군	18	18	19	8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6.457$, $df=4$, $p=0.000$)

표 36. 깜짝 깜짝 놀란다 (설문 28)

	깜짝 깜짝 놀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3	8	23	11	47
대조군	19	14	12	16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5.502$, $df=4$, $p=0.000$)

표 37. 죽고 싶다 (설문 29)

	죽고 싶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9	9	7	16	6	47
대조군	27	20	16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4.126$, $df=4$, $p=0.000$)

표 38. 아무 이유없는 똑같은 생각이 자꾸 나서 견디기 힘들다 (설문 30)

	아무 이유없는 똑같은 생각이 자꾸 나서 견디기 힘들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8	10	19	6	48
대조군	20	23	13	6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3.605$, $df=4$, $p=0.000$)

6.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恨)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에서는 “내 삶은 불행하다”, “내게는 억울한 일이 많았다”, “세상은 내게 너무나 야속하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끄럽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적이 있다”,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왔다”, “나는 아무 일도 하기가 싫다”, “내 가슴 속에는恨이 맺혀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의 설문에서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표 39. 내 삶은 불행하다 (설문 31)

	내 삶은 불행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7	13	21	5	48
대조군	19	25	17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1.481$, $df=4$, $p=0.000$)

표 40. 내게는 억울한 일이 많았다 (설문 32)

	내게는 억울한 일이 많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8	5	23	12	48
대조군	11	21	14	13	5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4.975$, $df=4$, $p=0.000$)

표 41. 세상은 내게 너무나 야속하다 (설문 33)

	세상은 내게 너무나 야속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8	10	21	8	48
대조군	14	23	15	9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4.818$, $df=4$, $p=0.000$)

표 42. 내 인생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끄럽다 (설문 34)

	내 인생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끄럽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16	6	19	4	48
대조군	27	23	7	6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9.811$, $df=4$, $p=0.000$)

표 43.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설문 35)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4	12	8	19	5	48
대조군	14	31	7	11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6.876$,
df=4, p=0.002)

표 44. 내 이야기를 마치 단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설문 36)

내 이야기를 마치 단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22	5	15	1	48
대조군	9	23	15	14	3	64

표 45.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 (설문 37)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15	6	20	6	48
대조군	8	26	11	13	6	64

표 46.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설문 38)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7	26	9	47
대조군	5	17	14	21	7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2.347$,
df=4, p=0.015)

표 47.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적이 있
다 (설문 39)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적이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6	4	7	19	12	48
대조군	9	26	16	8	4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7.206$,
df=4, p=0.000)

표 48.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다 (설문 40)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7	10	21	10	48
대조군	18	21	13	8	3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3.574$,
df=4, p=0.000)

표 49.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설문 41)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7	6	7	22	6	48
대조군	10	24	17	8	5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0.248$,
df=4, p=0.000)

표 50.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왔다 (설문 42)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왔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4	12	7	16	9	48
대조군	18	29	6	6	4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0.857$,
df=4, p=0.000)

표 51. 나는 아무 일도 하기가 싫다 (설문 43)

나는 아무 일도 하기가 싫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7	13	4	21	3	48
대조군	17	27	13	7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1.995$, $df=4$, $p=0.000$)

표 52. 내 가슴 속에는 뉘이 맺혀 있다 (설문 44)

내 가슴 속에는 뉘이 맺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2	2	6	22	16	48
대조군	21	17	7	13	5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4.290$, $df=4$, $p=0.000$)

표 53.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설문 45)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2	3	26	17	48
대조군	4	7	14	29	10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3.871$, $df=4$, $p=0.008$)

7. 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에서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진땀이 난다”, “신체 일부분 또는 온 몸이 가렵다”, “얼굴에 열이 달아오른다”, “온 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속에서 열이 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감을 느낀다”,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피로하다”, “온 몸이 아프다”, “평소에 밥맛이 없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입맛이 없어진다”,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다”,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

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된다”, “입이 마르고 쓰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쉰다”,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 의 설문 에 환병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54.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설문 46)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6	8	3	22	9	48
대조군	23	20	8	10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3.066$, $df=4$, $p=0.000$)

표 55. 진땀이 난다 (설문 47)

진땀이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3	8	6	25	6	48
대조군	22	20	12	8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0.681$, $df=4$, $p=0.000$)

표 56. 신체 일부분 또는 온 몸이 가렵다 (설문 48)

신체 일부분 또는 온 몸이 가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13	13	7	15		48
대조군	29	18	9	6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0.947$, $df=4$, $p=0.027$)

표 57. 얼굴에 열이 달아오른다 (설문 49)

얼굴에 열이 달아오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환병		6	7	32	3	48
대조군	21	20	9	13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6.265$,
df=4, p=0.000)

표 58. 온 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설문 50)

		온 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9	9	26	3	48
대조군		20	27	7	9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4.108$,
df=4, p=0.000)

표 59. 속에서 열이 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설문 51)

		속에서 열이 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12	13	13	5	48
대조군		31	24	2	6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4.509$,
df=4, p=0.000)

표 60.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감을 느낀다 (설문 52)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감을 느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4	6	32	5	48
대조군		20	23	13	5	2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53.070$,
df=4, p=0.000)

표 61.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설문 53)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5	16	18	7	48
대조군		15	18	14	16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0.166$,
df=4, p=0.000)

표 62. 피로하다 (설문 54)

		피로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6	22	17	48
대조군		3	10	18	26	7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5.296$,
df=4, p=0.004)

표 63. 온 몸이 아프다 (설문 55)

		온 몸이 아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4	7	7	17	13	48
대조군		12	15	16	14	6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1.483$,
df=4, p=0.022)

표 64. 소변에 이상이 있다 (설문 56)

		소변에 이상이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0	12	7	17	2	48
대조군		21	21	10	11		63

표 65. 평소에 밥 맛이 없다 (설문 57)

		평소에 밥 맛이 없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13	14	12	6	47
대조군		21	23	12	7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4.126$,
df=4, p=0.000)

표 66.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입맛이 없어진다

(설문 58)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입맛이 없어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6	8	19	10	48
대조군	8	23	15	14	4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120$, $df=4$, $p=0.009$)

표 67.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다 (설문 59)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3	11	4	22	7	47
대조군	13	21	16	13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1.285$, $df=4$, $p=0.000$)

표 68.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설문 60)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17	10	17	2	48
대조군	17	27	9	8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5.641$, $df=4$, $p=0.004$)

표 69. 변비나 설사가 있다 (설문 61)

	변비나 설사가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8	9	10	17	4	48
대조군	20	19	12	7	6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1.410$, $df=4$, $p=0.022$)

표 70. 머리가 아프다 (설문 62)

	머리가 아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3	5	27	12	48
대조군	14	19	15	14	1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0.037$, $df=4$, $p=0.000$)

표 71. 어지럽다 (설문 63)

	어지럽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6	6	30	5	48
대조군	9	20	19	14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6.048$, $df=4$, $p=0.000$)

표 72. 귀에서 소리가 난다 (설문 64)

	귀에서 소리가 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2	9	6	14	5	46
대조군	21	26	7	9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1.916$, $df=4$, $p=0.018$)

표 73.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된다 (설문 65)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된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3	10	24	9	48
대조군	8	11	20	25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8.619$, $df=4$, $p=0.001$)

표 74. 입이 마르고 쓰다 (설문 66)

	입이 마르고 쓰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5	3	11	18	11	48
대조군	17	22	9	13	3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24.783$, $df=4$, $p=0.000$)

표 75.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쉰다 (설문 67)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쉰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2	5	28	12	48
대조군	16	19	16	11	2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5.965$, $df=4$, $p=0.000$)

표 76.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설문 68)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6	26	14	48
대조군	13	20	13	15	2	63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0.979$, $df=4$, $p=0.000$)

표 77.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 (설문 69)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2	2	7	22	15	48
대조군	21	25	11	6	1	64

χ^2 - test 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56.436$, $df=4$, $p=0.000$)

8. 증상 심화, 경감 요인

표 78. 폐경기를 전후해서 증상이 심해졌다 (설문 70)

	폐경기를 전후해서 증상이 심해졌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4	10	7	11	2	34

표 79.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설문 71)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8	13	7	9	1	38

표 80. 날씨가 더우면 증상이 심해진다 (설문 72)

	날씨가 더우면 증상이 심해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14	6	16	1	38

표 81. 종교를 믿고 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설문 73)

	종교를 믿고 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2	9	7	9	1	38

표 82.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 (설문 74)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환병	1	12	3	21	1	38

9. 상관관계

표 83. 환병 환자군의 항목별 Pearson 상관계수

	가정생활	경제	방어·대응	신체증상	심리증상	恨	陽성향	陰성향	의존성	내탓
가정생활		-.136	.361*	-.274	-.299	-.612**	.182	-.342*	.041	.211
경제	-.136		-.138	.064	.106	.264	-.001	.218	-.121	-.274
방어·대응	.361*	-.138		-.039	.233	-.028	-.181	-.188	.224	.020
신체증상	-.274	.064	-.039		.473**	.537**	-.101	.320*	.147	-.320*
심리증상	-.299	.106	.233	.473*		.605**	-.138	.031	.218	-.320*
恨	-.612**	.264	-.028	.537**	.605**		-.224	.344*	.033	-.148
陽성향	.182	-.001	-.181	-.101	-.138	-.224		-.158	-.018	-.053
陰성향	-.342*	.218	-.188	.320*	.031	.344*	-.158		-.149	-.076
의존성	.041	-.121	.224	.147	.218	.033	-.108	-.149		.023
내탓	.211	-.274	.020	-.320*	-.320*	-.148	-.053	-.076	.023	

* p<0.05 (2-tailed)

** p<0.01 (2-tailed)

표 84-1. 환병 환자군의 항목별 지수와 신체증상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가정생활	경제	방어·대응	신체증상	심리증상	恨
46.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703**	.313*	.398**
47. 진땀이 난다				.547**		.294*
48. 신체 일부분 또는 온몸이 가렵다				.297*		
49. 얼굴에 열이 달아오른다				.489**	.382**	.305*
50. 온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338*			.422**		.344*
51. 속에서 열이 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299*	.325*	
52.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감을 느낀다				.464**	.391**	.482**
53.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458**		.318*
54. 피로하다				.566**		
55. 온 몸이 아프다				.647**		
56. 소변에 이상이 있다				.414**		
57. 평소에 밥맛이 없다				.467**		.354*
58.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입맛이 없어진다				.432**		
59.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다				.600**		
60.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458**		
61. 변비나 설사가 있다				.557**		
62. 머리가 아프다				.347*		
63. 어지럽다				.504**		
64. 귀에서 소리가 난다				.337*		
65.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된다				.491**		
66. 입이 마르고 쓰다			-.338*	.678**		.332*
67.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쓴다				.430**	.357*	
68.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500**	.541**	.325*
69.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				.627**		.384**

* p<0.05 (2-tailed)

** p<0.01 (2-tailed)

- 환병환자의 임상양상에 대한 고찰 -

표 84-2. 환병 환자군의 항목별 지수와 신체증상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陽성향	陰성향	의존성	내탕
46.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333*		
47. 진땀이 난다		.288*		
48. 신체 일부분 또는 온몸이 가렵다				
49. 얼굴에 열이 달아오른다			.330*	-.335*
50. 온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292*
51. 속에서 열이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303*
52.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감을 느낀다		.392*		-.344*
53.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54. 피로하다				
55. 온 몸이 아프다				
56. 소변에 이상이 있다				
57. 평소에 밤맛이 없다				
58.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입맛이 없어진다		.285*		
59.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다				
60.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61. 변비나 설사가 있다				
62. 머리가 아프다				
63. 어지럽다				
64. 귀에서 소리가 난다				-.305*
65.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된다				
66. 입이 마르고 쓰다				
67.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쉰다				
68.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69.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				

* p<0.05 (2-tailed)

** p<0.01 (2-tailed)

IV. 考 察

한의학에서 화병에 대한 인식은 크게 火의 양상을 지니는 질병의 총칭으로 보는 시각과 정신과 영역에 한정된 울화병의 개념으로서의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병의 개념을 정신과적으로 한정시켜 화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위주로 설문지를 고안하여 이를 화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에 실시, 비교함으로써 화병 환자의 임상양상과 화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의 화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병은 중년 이후에 많으며, 여자에게 많고, 사회적, 경제적,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 많다. 발병기간이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친 만성적 경과의 병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病識이 있다^{18,26)}.

화병의 발생 원인은 여자일 경우 주로 가정 문제로 남편의 외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남자의 경우는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는 등의 사회적 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³³⁾.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손실로 인한 발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³⁴⁾.

민성길 등²⁶⁾은 화병의 특징적 4대 증상으로 몸의 열기, 답답함, 치밀어오름, 덩어리 뭉침을 들었으며, 이시형³⁵⁾은 화병을 鬱氣와 火氣의 두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화병의 증상은 불의 역동성과 그 부분적 억압 상태를 상징화한 것으로, 신체증상으로는 머리 부위의 증상으로 頭痛, 얼굴의 熱氣, 眩暈, 口渴이 나타나며, 가슴 부위의 증상으로 心悸, 가슴의 치밀, 목이나 가슴의 덩어리, 답답함, 소화장애 등이 나타나며, 정신증상으로 우울, 불안, 신경질, 짜증, 죽고 싶다. 사는 재미가 없다, 의욕이 없다, 허무하다, 잘 놀란다, 화가 폭발한다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8,23,26)}.

민성길 등^{21,26)}은 화병과 관련된 방어기제를 불완전한 억압과 신체화로 설명하였으며, 진단상 대부분 複數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신체화 장애, 우울증, 범불안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수에서 공황장애, 강박장애, 공포장애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우 등¹⁹⁾은 女人氣鬱, 肝氣鬱結, 心腎不交, 鬱久化火, 五志過極化火, 陰虛火旺 등의 병리기전을 들어 한의학적 화병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화병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병리기전은 '참고 또 참는' 상황의 지속으로 肝氣鬱結, 肝火上炎이 일어나고, 肝이 全身의 氣를 舒展, 通暢, 條達하지 못하여 情志가 抑鬱되고 他 臟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抑鬱된 肝氣가 土를 克하여 주로 脾胃의 소화기능에 문제를 가져오고, 火는 陽邪로 炎上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머리, 얼굴, 五官 등 인체 上部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며, 津液을 소모하여 건조하게 하며, 心과 相應하여 火熱의 邪가 心神을 요란시킨다¹⁹⁾.

화병의 감정은 단순한 일회적인 분노의 감정과는 달리 보다 장기적이고 의식적으로 억압해 온 누적된 감정인데, 이는 한의학의 鬱久而化火의 기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병이 여자에게 많은 이유는 여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되며, 부인은 남자보다 편벽한 욕심이 많고 병에 걸리는 것이 남자보다 많으며 嫉妬와 憂患, 慈戀, 愛憎이 깊고 견고하여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므로 병의 근본이 심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에 來院한 화병 환자는 모두 여자였으며, 이에 따라 대조군도 모두 여자로 설정하였다. 화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사이에 나이, 결혼, 직업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p<0.01)과 경제적 수준(p<0.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화병이 여자에게 많고 경제적,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호발한다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격소인에서는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는 원래 남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만다”, “나는 원래 옳지 못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의 설문들은 성격 소인의 陰 성향과 陽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분노의 외부 표출 (outward

expression of anger) 과 내부로의 억압 (inward experience of anger) 사이의 차이점과 이것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8~40)}.

환병 환자의 성격소인 중 陰성향과 陽성향은 분노를 내부로 억압하는 Anger-in과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Anger-out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는 원래 어떤 일이건 혼자서는 잘 못한다” 는 의존성에 대한 설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병 환자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민성길 등²⁹⁾은 환병 환자에게 있어 구강성(Orality)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증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병 환자군의 설문을 지수화한 항목별 상관성에 있어 陰성향과 가정생활이 負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陰성향과 신체증상($p<0.05$) 및 陰성향과 恨 ($p<0.05$)이 正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소인에서 참을성이나 회피 등 陰성향을 가진 사람이 신체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병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보는 “나는 내 병이 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의 설문에 대해서 신체증상 및 심리증상이 負的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환병 환자군의 신체증상과 항목별 상관성에 있어서는 陽성향에서는 신체증상과 상관관계를 갖는 설문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환병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보는 “나는 내 병이 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의 설문에 대해서 환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熱氣나 치밀어오름의 증상들이 負的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 환병 환자의 성격 소인은 陰的인 경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단순히 구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체질을 비롯하여 심리학적인 Anger, Hostility, Agression 등의 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생활에서는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의 차

이가 분명하였는데,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p<0.001),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p<0.01),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 (p<0.001), “시댁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이었다)”(p<0.01),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p<0.01) 등 모든 항목에서 환병 환자군에서 否定的인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인 “살아오는 동안 항상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해 왔다”에서는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환병 환자군의 설문을 지수화한 항목별 상관성에 있어 가정생활과 방어기제·대응양상이 正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이와 반대로 가정생활과 恨 (p<0.01)이나 가정생활과 성격소인의 陰성향(p<0.05)은 負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수록 방어기제·대응전략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참을성, 회피 등의 陰성향과 恨이라는 감정은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방어기제·대응전략에서는 “화가 날 때는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p<0.001), “화가 날 때는 혼자서 운다”(p<0.001)에서 정상인 대조군과 환병 환자군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환병 환자군의 설문을 지수화한 항목별 상관성에 있어 방어기제·대응전략과 가정생활의 正的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p<0.05).

민성길 등²⁹⁾은 환병의 방어기제와 대응전략에 있어 불완전한 억제 때문에 분노가 외부화하여 무모한 쇼핑 등의 행동화 기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화풀이’로 명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병 환자군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화풀이’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환병 환자는 이러한 ‘화풀이’의 기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화가 날 때는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 “화가 날 때는 혼자서 운다” 등의 억압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발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증상은 七情 중 喜를 제외한 怒, 憂, 思, 悲, 恐, 驚의 감정을 중심으로 고안되었다.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

다”(p<0.05), “짜증이 난다”(p<0.001), “불안하고 초조하다”(p<0.001), “우울하고 허무하다”(p<0.001), “외롭다”(p<0.001), “슬프다”(p<0.001), “두려운 생각이 든다”(p<0.001), “깜짝 깜짝 놀란다”(p<0.001), “죽고 싶다”(p<0.001), “아무 이유없는 똑같은 생각이 자주 나서 견디기 힘들다”(p<0.01) 의 설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七情에 해당하는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짜증이 난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우울하고 허무하다”, “외롭다”, “슬프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 “깜짝 깜짝 놀란다”를 지수화한 심리증상 항목과 타 항목과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심리증상과 신체증상(p<0.01), 심리증상과 恨(p<0.01)이 正的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스로의 성격 때문에 환병이 발생하였다는 “나는 내 병이 나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의 내담 항목과는 負的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七情에 해당하는 심리증상에 있어서 환병 환자는 정상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것이 신체증상 및 恨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라는 설문에서 환병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의 차이가 다른 설문에 비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설문이 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병 환자군의 성격요인에서 나타나듯이 화를 내는 양상이 大怒에 의한 폭발적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급, 찌꺼기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 鬱氣가 逆耐性 현상을 나타내어 火가 발생하는 역치를 상승시킨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전은 한의학적으로 實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陰이 虛해서 陽이 尙進된 虛證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민성길 등²⁰⁾의 연구에서 나타난 억울함, 야속함, 좌절감, 무능력감, 부인, 체면, 하소연 등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恨이라는 감정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 양상들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내 삶은 불행하다”(p<0.001), “내게는 억울한 일이 많았다”(p<0.001), “세상은 내게 너무나 야속하

다”(p<0.001), “내 인생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끄럽다”(p<0.001),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p<0.01),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p<0.05),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적이 있다”(p<0.001),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다”(p<0.001),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p<0.001),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왔다”(p<0.001), “나는 아무 일도 하기가 싫다”(p<0.001), “내 가슴 속에는恨이 맺혀 있다”(p<0.001),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p<0.01) 의 설문에서 정상인 대조군과 환병 환자의 차이점이 인정되었다.

환병 환자군의 설문을 지수화한 항목별 상관성에 있어 환병 환자의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恨)는 가정생활과 負的 상관관계가 있었고(p<0.01), 恨과 신체증상(p<0.01) 및 恨과 심리증상(p<0.01)과의 正的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또한 성격소인 중 참을성, 회피 등의 陰성향과의 正的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p<0.05).

기본적인 심리증상, 즉 七情에 해당하는 심리증상보다 恨과 관련이 깊은 심리증상이 신체적 증상들과 더 상관관계가 깊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진땀이 난다”, “온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사지에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입이 마르고 쓰다”, “목이나 가슴, 상복부에 무엇인가 뭉친 것 같다”의 항목은 심리증상에서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恨과 관련 있는 감정군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속에서 열이 나서 더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한숨을 잘 쉰다”의 설문은 심리증상에서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으나, 恨과 관련있는 감정군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恨과 관련있는 감정들은 보다 오래 지속된 결과로 신체화에 있어 기존의 七情의 심리증상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七情과 신체 반응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素問·舉痛論>¹³⁾에서는 “帝曰 善. 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 岐伯曰: 怒則氣逆, 甚則嘔血及痰泄, 故氣上矣.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故氣緩矣。悲則心係急，肺布葉舉，而上焦不通，榮衛不散，熱氣在中，故氣消矣。恐則精却，却則上焦閉，閉則氣還，還則下焦脹，故氣不行矣。寒則腠理閉，氣不行，故氣收矣。炅則腠理開，榮衛通汗大泄，故氣泄。驚則心無所倚，神無所歸，慮無所定，故氣亂矣。勞則喘息汗出，內外皆越，故氣耗矣。思則心有所存，神有所歸，正氣留而不行，故氣結矣。”라 하였다.

환병 환자에 있어서는 七情에 해당하는 심리증상과 신체증상 사이의 대응관계가 문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환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잠울성 내지 恨의 감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병 환자의 심리적 정신역동은 恨이란 감정에 의해 七情에 대한 氣의 반응이 변조된 상태로 추측 가능하다.

恨이란 욕구의 좌절과 억압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남게 된 갈망, 좌절, 슬픔, 수용, 체념, 관조, 해학, 승화 등이 얽혀진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⁷⁾.

한의학적으로 恨의 감정을 해석한다면 氣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喜怒哀思悲恐驚의 七情의 기본 감정이 오래도록 쌓이고 섞이면서 생긴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恨의 감정은 氣의 방향성도 일정하게 가지지 않아서, 환병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신체 증상도 가라앉는 증상과 치미는 증상이 공존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발생은 한국민족의 성격, 문화와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완상²⁸⁾은 恨은 한국민족 특유의 현상, 민중의 역사적 계층의식 및 보편적 감정, 정동체험 내지 감정 복합이라 했으며, Jung 의 원형(achetype)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恨은 한국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으며, 이미 그 한자적 의미를 넘어선 한국고유의 정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문화에서 분노의 표출양상은 자학적인 특징을 지니는 경향이 있는데, 분노가 분노를 일으킨 대상을 향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자 탓, 운명 탓을 하면서 감싸 안으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시형^{33,35)}은 환병 환자에게서 자학적인 면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恨이란 감정의 특징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감정을 명확히 표출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삭혀서 변화된 형태로 표출하는 한국인의 심리 기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다른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존하고 상호 침투하게 함으로써 복합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감정인 恨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표현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화되는 경향이 한국인에게서 높다는 것은 이병윤³³⁾을 비롯해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환병은 이러한 恨의 정신역동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恨을 풀기 위해서는 고대로부터 ‘굿’과 같은 巫俗의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歌舞를 통하여 자신을 神에게 맡기어 神明, 즉 신바람에 이르게 함으로써 和氣를 通暢케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신나다’는 감정풀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감정적 일체감을 느낄 때 솟아오르는 기본풀이로, 이성의 제한적 사고를 떠나 현실의 모든 제약을 벗고 脫魂하려는 초과적 감정 고양이라 할 수 있다¹⁹⁾. 즉, 恨의 해소는 하소연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심리적 해방감을 맞을 수 있는 것인데, 환병이 전형적인 우울증과 다른 점도 눈물, 한숨과 더불어 하소연, 즉 말이 많다는 점이다²⁸⁾.

그러나 恨이란 감정을 단순히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겪은 것과 유사한 고난이나 설움을 겪은 유대 민족이나 흑인 등에 있어 恨과 유사한 감정의 분출이 문학이나 음악에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恨이란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규정되어지는 감정으로 보이며, 우리 민족만의 특수성과 동시에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민족에서의 보편성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恨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심리적, 신체적 질병양상에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七情에 해당하는 심리증상들과 신체증상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일정한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생각된다.

민성길 등²⁴⁾은 우울증에서 보이는 신체화 경향에 관

한 연구를 통하여 유발 인자와 신체적 증상의 양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상실, 이별, 증오 등 내적 심리적 문제일 때에, 스트레스-좌절 등 현실적 외적 문제보다 신체화 경향이 크며, 유발인자와 증상 특징을 관련시켜 볼 때 상실-이별은 불면증과, 스트레스-좌절은 소화기계 장애와, 증오-공격은 신체통증과, 공포는 피로무력감과 유의하게 관련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 증상을 정신 증상과 연관시켜 볼 때 우울기분, 불안, 증오, 격앙 등 감정 장애가 있을 때, 비판, 자살의도, 편집성 사고, 강박적 사고, 건강염려증 등 사고장애가 있을 때 보다 신체화 경향과 관련이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보이는데 특히 불안은 호흡장애, 심계항진, 현훈, 피로무력감, 이상 감각 등 신체증상이 많고 증오에는 신체통증이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병 환자의 특징적인 신체 증상에만 한정된 설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설문을 통해서 정상인과 환병 환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七情이 어떠한 신체증상을 유발시키며 신체증상이 갖는 氣의 방향성 및 관련된 臟腑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와 특정 질병에 있어서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통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의 경감과 심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에서는 정상인 대조군과 비교해 볼 수 없었으므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폐경기를 전후해서 증상이 심해졌다”, “날씨가 더우면 증상이 심해진다”,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수와 아니라고 하는 수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종교를 믿고 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설문문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쪽이 많았다.

전술한 환병의 심리기제와 신체화 과정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환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怒則氣上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할 氣를 불안전하게 억압함으로써 鬱하게 되며, 鬱久하여 化火함으로써 火의 양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鬱氣는 火에 대한 역치를 상승시켜 정상인은 견딜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火가 상승하는 逆耐性 현상을 보이게 되며 이

것은 한의학적으로 實證의 범주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병 환자의 火와 怒의 양상은 순간 자신을 잊을 정도로 크게 폭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폭발하며 항상 內燃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陰虛火旺과는 병리적 기제가 틀린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환병의 治法은 火를 發散시켜 鬱한 감정의 제거기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올라가지 못하는 氣를 상승시켜 鬱氣를 풀고, 火氣는 그 上升을 도와 發散시킴으로써 熱을 내리는 治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은 體質에 따른 氣의 升降緩束을 고려할 때 적절히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환병 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고안하여 환병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환병 환자군의 인적사항은 환병이 여자에게 많고 경제적,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호발한다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2. 환병 환자군의 성격 소인과 삶에 대한 방어기제·대응전략은 陰的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환병 환자군의 가정생활은 모든 면에서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컸다.
4.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환병 환자군은 전반적으로 恨에 해당하는 감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 양상이 七情에 대한 氣의 반응을 변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參考文獻

1. 김형효, 윤재근, 박순영, 여중철, 강광식 :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58-79, 1994.
2. 문준진, 안규석, 최승훈 共編 : 東醫病理學, 서울, 고문사, pp.271-274, 1990.
3. 민성길 :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81, 1996.
4. 백상창 : 恨과 한국병, 서울, 한국사회병리연구소, pp.27-42, 1993.
5. 서광선 : 恨의 이야기, 서울, 보리, pp.61-84, 1988.
6. 성태제 : 현대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良書院, pp.121-130, 1995.
7. 신용철 외 : 신경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p.156, 1996.
8. 李鐘馨 : 火(熱)病에 總括, 松齊 李鐘馨 정년퇴임 논문집(松齊醫學會), pp.210-216, 1994.
9. 정충영, 최이규 :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pp.126-130, 180-195, 1997.
10. 조홍건 : 스트레스병과 火病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95-100, 1991.
11. 최길성 : 한국인의 恨, 서울, 예전사, pp.68-148, 1996.
12. 최중후, 이재창 : 학술논문과 통계적 기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1996.
13. 홍원식 編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146, 1981.
14. 황의완 : 心身症, 서울, 행림출판, 1985.
15. 황의완, 김지혁 編著 : 東醫精神醫學,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pp.103-109, 1992.
16. 구병수, 이종형 : 火病에 대한 文獻의 小考,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4(1):1-18, 1993.
17. 김종우, 김지혁, 황의완 : STRESS의 한의학적 이해,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4(1):19-26, 1993.
18. 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효진, 황의완 : 火病에 대한 임상적 연구 - 한의학적 火病 모델을 중심으로-,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4(2):23-32, 1997.
19. 김종우, 황의완 : 한의학에서 본 火病의 해석,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5(1):9-14, 1994.
20. 문충모, 김지혁, 황의완 : Stress 와 火에 關한 東西醫學의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9:146-153, 1989.
21. 민성길, 이만홍, 신정호, 박목희, 김만권, 이호영 : 火病에 대한 진단적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29(6):653-661, 1986.
22. 민성길, 김진학 : 보길도에서의 火病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5(3):459-465, 1986.
23. 민성길, 이만홍, 강홍조, 이호영 : 火病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30(2):187-197, 1987.
24. 민성길, 김경희 : 우울증에서 보는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149-154, 1987.
25. 민성길, 소은희, 변용욱 : 정신과 의사와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신경정신의학 28(1):146-153, 1989.
26. 민성길 : 火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604-615, 1989.
27. 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 火病에 대한 일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4):867-873, 1990.
28.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대한의학협회지 34(11):1189-1198, 1991.
29. 민성길, 박성찬, 한정옥 : 火病에 있어서의 방어기제와 대응전략, 신경정신의학 32(4):506-515, 1993.
30. 송필정, 정대규 : 鬱症에 대한 文獻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6(1):107-113, 1995.
31. 이승기, 김종우, 황의완 : 火病 환자 1例의 임상보고,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7(1):173-178, 1996.
32. 이승재, 정승현, 이원철 : 氣鬱과 소화기질환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7(1):121-134, 1996.
33. 이시형 : 火病에 대한 연구, 高醫 1(2):63-69, 1977.
34. 이시형, 오강섭, 조소연, 배석주, 이성희, 김영철 : 火病의 임상연구(II) - 분노반응으로서의 火病, 高醫 2:145-150, 1989.
35. 이시형, 조소연, 이성희 : 鬱化病으로서의 火病형성기전, 高醫 12:151-156, 1989.
36. Lin KM. : Hwa-Byung, A Korean Culture-Bound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1):105-7, 1983.
37. Pang KY. : HWABYUNG,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popular illness among korean elderly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Culture, Medicine & Psychiatry. 14(4):495-512, 1990.

38. Lee Goldman, David A.F. HAAGA :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in marital and other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3:505-509, 1995.
39. John W. Burns, Barbara J. Johnson, Neil Mahoney, James Devine, Ronald Pawl : Anger management style, hostility and spouse responses,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adjustment among chronic pain patients, Pain, 64:445-453, 1996.
40. Aron Wolfe Siegman, Selena Cappell Snow : The outward expression of anger, the inward experience of anger and CVR, the role of vocal expression 20(1):29-45, 1997.

= Abstract =

The Study on the Clinical Aspects of Hwabyung Patients

**Sang-Eun Chi,
Jong-Woo Kim,
Wei-Wan Whang,
Hwang-Sung Cho***

Departmen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questionnaire which wa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ymptoms of Hwabyung patients was distributed to Hwabyung patients and normal control group.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t was observed in this study that the rate of occurrence of Hwabyung was higher in female and the people with lower economical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is result wa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studies.
2. The personality, defense mechanism and coping strategy of Hwabyung patients was found to be inclined to yin(陰) disposition in this study.
3. Family life of Hwabyung patients was found to be worse than that of normal control group in every respect.
4.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ir lives, the emotion of Hwabyung patients was characterized as Hahn(恨). And it is postulated that this emotional complex falsifies the reaction of Ki(氣) to the seven emotions(七情).